남해관광문화재단, 아이디어 발굴 위해 관광창업 교육

박영준 기자 | 승인 2023.05.10 15:35

관광창업 교육 일정표[사진=남해군]

[이뉴스투데이 경남서부취재본부 박영준 기자]남해관광문화재단은 참신한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관광 창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관광 창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사업 참여자 5개 팀 외에도 관광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강의는 5월 12일 14시 남해유배문학관에서 '관광 소비 트렌드의 이해'를 주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진보라 박사가 강의를 한다.

이어서 로컬비즈니스 사례 공유(동네봄 김순영 대표), 디지털마케팅 전략(부산언니 정소리 대표), 창업아이디어 구체화(푸디온 김태현 대표), 사업계획서 작성법(대동CMC 김대원 이사) 등의 강의가 매주 진행될 예정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역민의 관광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해 관광시책화 함으로써 남해관광의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에 선발된 예비창업자 5개팀은 오는 9월까지 교육과 멘토링, 디자인 등 실제 창업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조영호 본부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사업체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해에서 관광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준 기자